

오피니언

월/요/광/장

임 내 현



현대·기아차 비자금사건으로 이 회사들이 적지 않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그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의 약 30%라는 큰 몫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회사의 경영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일수록 노조와 근로자 및 협력사,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소의’되고 ‘작취’당한 무산계층, 소위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계급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실제 역사의 전개과정을 볼 때 잘못되었음이 명백해졌다. 과거의 노동계층이 엄청난 소

기아차, 지금이 바로 노사화합 할 때다

독향상으로 자본주의 초기의 증산층 이상 생활수준을 누리게 되자 혁명의 대열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은 조선왕조시대에도 불가 능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경까지 노동운동이 억제되어 응분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후 민주화 과정에서 노조의 투쟁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노동자 소득증대의 주된 원인은 노

조의 투쟁 덕이리라 보다는 생산성혁명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1880년 이래 노동생산성이 매년 3.5% 내지 4%씩 향상되어 국가 생산력이 약 50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로서 어느 분야든지 일류가 되지 않고는 살아 남기 힘들다. 일류라 하더라도 1등과 2등의 차이는 막대한 것이 되고 있다.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로섬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노사 협력으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시킨 다음 양쪽 다 크게 분배받는 ‘윈-윈 게임’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세사의 역사적 교훈과 21세기의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노사관계가 가야 할 방향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업평화정책을 통한 공존공영이나 아니면 투쟁을 통한 권익확보에 집착하여 공멸의 길을 갈 것이냐의 두 갈래 길 중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노사문제는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 국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시민단체나 언론계를 위시하여 많은 시민들

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노사협력을 촉구하고 성원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노사화합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이 지역은 임진왜란 시 활발한 의병활동, 일제시대의 학생독립운동 및 광주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맞서 나라와 민주주의를 구한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타 지역 사람들에 대하여 광주 전남지역민들이 저항정신, 비판정신이 강하다는 인상을 깊이 심어준 듯하다.

그리하여 타 지역의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기업체가 적어 우리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이 외지에 가서 취업하고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높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어느 지역보다 이 지역이 노사화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범시민적으로 외지에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역발전의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이 때야말로 기아차가 노사화합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가정해체’시대 새로운 가족규범 필요하다

신록이 눈부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 가정의 모습은 20년 전의 그것과 너무 달라져버렸다.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이 든 5월, 가정의 소중함을 오롯이 느끼며 가족구성원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정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이혼의 급증이다. 1996년까지 매년 0.1%씩 증가하는데 그쳤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IMF 위기가 닥친 1997년 무려 2.5%가 높았고 이후 계속 급증세를 보여 지난해엔 9.3%로 아시아 최고를 기록하고 말았다. 거의 10%에 한쌍은 이혼을 한다는 놀라운 수치다. 이혼 증가는 결혼사종의 발생으로 이어지며 확대되는 어린이도 따라서 늘고 있다.

사회화자들은 이같은 가족해체의 원인을 급속한 산업화에서 찾는데 보충이다. 서구사회가 200년에 걸쳐 이혼 산업을 우리나라는 단 25년만에 이뤄내면 서 모든 가치기준이 변모 했지만 변화

속도가 훨씬 느리게 마련인 가족규범은 유교문화에 근본을 둔 체 적절할 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통 가족규범은 산업화 정보화 사회와 여러곳에서 모순되지만 한국의 가정은 시대에 맞는 도덕률을 갖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보다 관대한 가족규범이 형성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이혼 남녀나 독신으로 지내는 성인들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한다. 광주·전남 초등학교 교실에 흔히 보이는 편부모 가정 아동들에 대해서도 학교당국은 혼연스레 대해야 한다. 개정 호적법에 따라 여성 호주 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혼혈아동에 대해서도 사회구성원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양친 부모와 자녀’를 기준으로 한 가족규범만을 최선으로 삼기엔 우리사회가 이제 너무 복잡해졌다. 남과 다른 가족형태가 곧 불행이라고 보는 옛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신가족’규범을 강구해야 할 때다.

호남고속철 정음·남공주역 설치해선 안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정음역과 남공주역 두곳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남고속철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목포간 중간 정차역이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2개 정차역이 신설되면 5천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들고 운영시간도 늦어져 저속철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고속철이 저속철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적자폭 확대는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미 철도공사 적자가 10조원을 넘어 섰다. 그럼에도 추가 건설비용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이 호남고속철의 수확성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표면 알으면 그만이라는 구태 정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호남고속철의 주요 고객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다. 지역민들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중간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광주·전남지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더 이상 부실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호남고속철의 마스터플랜을 앞당기는데 주력해야 한다. 서울~광주와 광주~목포 구간으로 준공 시기를 이원화한 것은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 전구간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촉구한다.

호남고속철 중간역에 느닷없이 정음역과 남공주역이 추가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당리당략 때문이다. 사실 40~50대 이상 독자들은 지난 70년대 국내 식량사정이 좋지않아 정부의 쌀 생산정책으로 수확량이 많은 통일벼가 농가에 권장됐고 통일벼 쌀은 밥맛이 없었다는 것을 금방 기억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국내 쌀 생산량이 늘고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쌀 재고량이 많아져 식량증산 정책을 접고 고품질 친환경 위주로 쌀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기고

정 범 도



광주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광주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중단하라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이 97.5%인 광주에서 광주천은 그대로 방치하면 우수기를 제외하고는 100% 건천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광주천의 현실은 중앙청 등 일부 유량이 확보되어 있는 청계천보다 여건이 훨씬 열악하다. 따라서 광주천에 유량을 확보하려면 현행대로 광주하수처리장 유수취수장에서 상류로 물을 퍼올리는 방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저류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광주도심을 전부 소개시키고 도심 전역을 빗물저류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유량이 부족한 광주천은 중간 중간에 볼 수 있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재 광주천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유량이 부족한 광주천은 중간 중간에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광주천은 해마다 물에 산소가 부족해 한 두 차례 물고기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려면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분수를 만들어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광주천에 현재 설치되

광주천 정화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방식을 거두어들이고 상류에 유수용 호수, 도심에 빗물 저류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요구를 하고 있다. 광주천에 1일 10만톤 이상의 유량을 확보하려면 광주천 상류에 광주호보다 큰 호수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도심에 수천만평의 빗물 저류장을 건설해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현재 광주는 광주에 있는 수원지의 물로는 턱없이 식수가 부족해 전남 화순의 동복에 댐을 건설하여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 광주천 상류에 광주댐 보다 더 큰 광주천 유수용 호수를 건설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무리 시민단체라 해도 이러한 타당공론은 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도심에 빗물 저류장을 만들어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광주천의 수량을 확보하려면 도심에 여의도 면적의 열배 이상의 면적을 가진 빗물

이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청계천 복원은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흙을 쌓아 조성한 그야말로 인공천이다. 이에 비해 광주천은 원래의 자연하천을 유지하면서 치수와 교통을 위해 약간의 변형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청계천 복원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광주천 정화사업을 ‘청계천 배개기’라고 비난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고 의심받을만 하다. 필자는 4년 전 광주천 유수취수장에 적용되던 일반용 전기요금과 각고의 노력 끝에 한전의 전력공급 규정까지 개정하게 만들어 산업을 전기요금으로 전환시켰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광주천 정화사업을 중단하라는 말도 안되는 공세에 필자는 매우 허탈할 따름이다.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

건강 보험 상급병실료·특진비 보험 적용해줘야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먹고 살기 힘든데 또 보험료만 올린다고 주위에서 말들이 많다.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중증환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그렇다. 건강보험의 현실은 아직도 고가의 장비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MRI나 CT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고 해도 촬영 뒤 병명과 증상이 확인이 안되면 촬영비료 도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니 이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제도다. 식대를 보험으로 편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다행이지만 상급병실료와 특진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충동

기고

이 영 기



올해 우리나라 유사이래 최초로 밥쌀용 수입쌀 약 5만7천t(39만9천석)이 국내에 반입된다. 이는 국내 연간 총 쌀소비량의 약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양이나, 우리 국민의 주식이 쌀이라는 특성상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지난 4월 이미 미국산 수입쌀 칼로스 1천369t이 3차례에 걸쳐 공매가 실시됐으나, 양식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매에 불참한 가운데 중소 도매상인들이 공매에 참가해 이중 450t(33%)만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발표했다. 공매된 미국산 수입 쌀 칼로스쌀의 미질이나 판매추이에 대해 농업인이나 농민단체, 농협 등 농업관련기관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현안으로 촉각을 곤두세운

수입쌀 칼로스를 호기심에서 한번 사 먹고 밥맛이 없어 바로 외면한 소비자들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 드린다. 사실 40~50대 이상 독자들은 지난 70년대 국내 식량사정이 좋지않아 정부의 쌀 생산정책으로 수확량이 많은 통일벼가 농가에 권장됐고 통일벼 쌀은 밥맛이 없었다는 것을 금방 기억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국내 쌀 생산량이 늘고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쌀 재고량이 많아져 식량증산 정책을 접고 고품질 친환경 위주로 쌀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남농업인과 농협, 농정당국은 품질우수 종자확보 및 농가보급, 농가와 RPC농협과의 단일품종에 의한 계약

쌀밥전쟁, 심겁게 끝났다

바 있다. 수입쌀 칼로스가 호평을 받을 경우 농도인 전남 농가들에게는 ‘4월이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미국산 칼로스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취재한 후 한결같이 ‘미국산 칼로스쌀, 천덕꾸러기 전락’, ‘밥맛이 형편없어 반쯤사태 속출’ 등의 기사를 톱 뉴스로 다루고 있다. 근거없이 과거 일부 부유층으로부터 밥맛 좋다고 소문만 무성한 미국산 칼로스쌀이 보기 좋게 녹다운(KO)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산 칼로스쌀을 밥맛 전쟁에서 때려 누인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고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준 달이 된 셈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자재·양곡팀장>

재배 확대, 고품질 벼 생산기술과 수확법 지도,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는 친환경적 재배확대, RPC시설 현대화로 저장·도정시설의 획기적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전남쌀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부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뽑은 전국 12대 우수브랜드쌀에 3년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결국 미국산 수입쌀 칼로스를 KO시킨 장본인이 바로 전남쌀이 아닌가 싶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밥맛없는 개립칙한 수입 쌀을 먹느니 생산과정이 확실한 우리쌀로 밥을 지어 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자재·양곡팀장>

생활 정보지 이용한 부동산 사기 주의

지역마다 보통 4~5개 있는 생활정보지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정보지를 악용,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매매사기로, 생활정보지를 이용하는 부동산사기의 경우는 매도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정보지의 부동산 매도란을 살펴 본 뒤 단위가 큰 부동산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하더니 수수료 를 요구한다.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감정은 주로 건물을 담보로 잡혔을 때 측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부동산 매도자의 경우 단위가 큰 부동산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임금부터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광고에 나온 부동산이 실제로 있는건지 정확히 확인하고 일일이 따져 결정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 等 鼓

21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 정자연구 학자인 막스 주르노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래도 그는 행복한 편이다. 70을 넘게 살았고, 무엇보다 그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란 행운(?)을 누렸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젊은 시절, 즉 21세기 초입에 정자의 수정 능력을 고갈시키는 바이러스를 발견한다. 불임 바이러스는 막스가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 종언이란 음모를 꾸며왔었다. 또 설령 임신이 된다고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정상아 아니었다. 잘 사는 나라, 즉 유럽과 북미를 시작으로 퍼진 바이러스는 결국 선진국 인종

원해 그려간 이 소설은 묵시론적 인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소설은 소설로 치부하자. 그러나 소설 속의 가상 시나리오로만 보기에 우리 현실이 너무 짙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최하위권이다. 현재의 출산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의 현 인구 4천 600만이 2050년에는 3천만, 200년 후에는 500만, 2800년이면 마지막 한국인이 죽는다고 한다. 최근 일본 내각부가 조사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5개 나라 국민 1천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출산율 육아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들 낳고 키우기 쉬운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긍정적인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아이 기피 이유로 한국인의 68%가 ‘돈’을 들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 남은 한국인이 죽는 날이 울지도 모른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마지막 한국인



21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 정자연구 학자인 막스 주르노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래도 그는 행복한 편이다. 70을 넘게 살았고, 무엇보다 그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란 행운(?)을 누렸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젊은 시절, 즉 21세기 초입에 정자의 수정 능력을 고갈시키는 바이러스를 발견한다. 불임 바이러스는 막스가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 종언이란 음모를 꾸며왔었다. 또 설령 임신이 된다고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정상아 아니었다. 잘 사는 나라, 즉 유럽과 북미를 시작으로 퍼진 바이러스는 결국 선진국 인종부터 말살해졌다. 바이러스 발견 이후 불과 한 세대를 조금 넘긴 시간만에 인류는 멸종한다. 마지막 인간 막스도 죽는다. 물론 실제 예기는 아니다. 지난해 우리말로 번역된 에릭 나프의 ‘아담, 바이러스의 자서전’이란 소설의 스토리다. 의사인 저자가 전문가적 지식을 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